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부부의 자녀양육시간 유형 및 유형별 특성

박 은 정(성균관대 박사수료) · 이 성 림(성균관대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부부의 자녀양육시간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하여 통계청의 '200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 중 20세 이상 60세 미만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부부의 시간일지표 및 질문지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행동은 자녀돌보기시간의 경우 '주행동'과 '동시행동'을 포함하였고 미취학자녀와의 공유가사시간과 공유여가시간은 '주행동'으로 한정하였으며 분석된 시간일지는 남편 784부, 부인 784부이다. 맞벌이부부의 자녀양육시간의 유형화를 위해 자녀돌봄, 가사공유, 여가공유의 세 차원을 기준으로 군집분석(K-Means 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군집간의 차이검증 및 유형별 특성을 밝히기 위해 교차분석, 일원분산분석 및 Duncan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은 성별 차이를 반영하여 남녀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연령, 교육수준, 직업, 소득, 주당노동시간의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성역할태도의 심리적 변수 그리고 시간부족감, 피로도, 시간사용만족도의 시간정서 변수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부부의 자녀양육시간은 남편 103분, 부인 266분으로 부인이 남편보다 자녀양육시간이 2.6배 많다.

둘째, 자녀돌봄, 가사공유, 여가공유시간을 축으로 맞벌이부부의 자녀양육시간을 유형화하면 남편은 취약형, 가사양육중심형, 여가형으로 분류되고, 부인은 취약형, 가사양육중심형, 가사양육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취약형(남편 80.6%, 부인 53.2%)에 속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은 동일하고, 남편은 다음으로 높은 분포를 보인 유형이 가사양육중심형(9.7%)과 여가형(9.7%)이고 부인은 가사양육형(39.4%) > 가사양육중심형(7.4%)의 순서로 나타났다.

셋째, 맞벌이부부의 자녀양육시간 유형별로 차이를 보이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남편의 경우 연령, 교육수준, 노동시간, 성역할태도의 변수에서 집단간 분포의 차이가 있었고 직업과 소득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부인은 연령, 노동시간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나 교육수준, 직업, 소득, 성역할태도에 따라서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넷째, 맞벌이부부의 자녀양육시간 유형별 시간정서의 차이는 남편의 경우 시간부족감, 피로도, 시간사용만족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밝혀지지 않았고 부인은 시간부족감과 피로도에서 집단간 차이가 밝혀졌다. 부인의 경우 취약형이 시간부족감을 가장 많이 느끼고 피로도를 가장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가사양육중심형의 시간부족감과 피로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볼 때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부부의 자녀양육시간 유형 중 취약형의 비율이 남편은 3/4이상, 부인은 절반이상이 속해 이들의 자녀양육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성과 여성 모두 노동시간이 자녀양육시간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동정책 및 일-자녀양육 양립에 대한 보육정책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남편의 성역할태도가 자녀양육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볼 때 자녀양육분담 및 책임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이 필요하다. 앞으로 자녀양육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수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나아가 다양한 활동에 시간을 사용한 결과 특정한 정서적 반응을 갖는다는 점에서 프랑스의 생활시간조사와 같이 활동별 만족도 문항이 추가되어 자녀양육활동별 시간이 만족도와 어떠한 관련을 갖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